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Gwangju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청렴소식지 제10호>

2017. 12. 28

청렴 특(Talk)



간추린 청렴뉴스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 α 직원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는 청렴마일리지는 매년 적극적인 참여로 마일리지 점수가 상승하고 있음
- α 올 한해 청렴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직원으로 종합관제팀 김상우, 통신팀 김영덕, 총무팀 박상원, 영업팀 박선미 직원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팀 평가에서는 노무복지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되었음

청렴홍보활동 전개

<광주·전남 청렴클러스터 홍보활동 전개>

- α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시교육청, 전남대학교병원,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7월 28일에 청렴실천 의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확산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주변에서 청렴물티슈 등 청렴 홍보물 배포를 통한 대대적인 청렴홍보활동을 전개하였음



<함께해요, 청렴! CEO와 함께하는 추석맞이 캠페인>

- α 추석을 맞이하여 9월 29일 직원 50여명이 광주송정역 일대에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과 도시철도 이용 홍보를 펼쳐 깨끗한 공기업 문화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2017년 청렴도 평가 1위 달성(3년연속 1위)

- α 대상기관 : 573개 기관(중앙기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 α 조사기간 : '17. 8월 ~ 11월
- α 조사내용 : 내·외부 청렴도
- α 조사결과 : 30개 지방공사·공단 중 1위 달성(1등급)

총 합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계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계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8.59	8.84	8.74	9.25	7.78	7.60	7.92

- α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평가결과(지방공사·공단) 1등급을 받아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 α 전년대비 외부청렴도는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는 하락하여 다소 아쉬운 성과이나 3년연속 청렴도 평가 1위 달성은 임직원 개개인의 청렴의식과 공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반부패 시책활동에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 α 내년도에는 그동안 윤리경영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짚어보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실에서는 더욱 노력할 것임

머릿속에 쓱쓱 ! 청렴교육~~청렴퀴즈~~

<전문가를 모시다. 청렴특강 실시>

- α 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11월 15일 본사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하여 청렴특강을 실시하였음



- α 90여명의 직원이 참석하였으며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임

<GO! GO! 하반기 청렴문화체험교육 실시>

- α 10월 18일 사장님과 함께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에서 조선시대 청백리의 청렴정신 체득을 위해 현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청림이 있는 문화이야기

- α 청림강의 수강, 청백리 전시실 관람, 청림사적지 탐방, 축령산 편백 힐링체험 등 일상에서 벗어나 교육과 힐링을 동시에 즐기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음



<우리 함께 풀어요. 퀴즈! 퀴즈!>

- α 우리공사 윤리규범 및 반부패.청림에 대한 관심도 향상을 위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림퀴즈(9월 실시)와 임직원 행동강령 바로알기 퀴즈(11월)를 실시하였음
- α 정답율이 90%이상으로 전직원의 청림에 대한 의식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역사 속 청림인(人)

- α 예전에 극장가를 아주 핫~하게 달구었던 영화 <마스터>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직자와 손을 잡고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즘처럼 공직자의 청림을 중요시하는 시기에 그야말로 부패의 정석을 보여주어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함
- α <내부자들>에서도 부패신교자가 주인공이었고, 청림과 부패가 영화 소재로 등장하는 걸 보면 확실히 청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α 그런 의미에서 옛날부터 청림을 실천한 역사적 인물의 일화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하정 류관 선생의 청백리 정신 >

“우리 집안에 길이 전할 사물은 청백이니, 대대로 서로 이어 끝없이 전한다.”라는 말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정 류관 선생입니다.

그는 소탈한 성품과 청렴결백한 모습으로 황희, 허조 선생과 함께 세종대왕 시대의 대표적인 청백리로 꼽히는 분입니다.



관직에 있을 당시에 무리한 고문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었으며 궁정의 의미없는 잔치와 술자리, 허례의식을 비판하였습니다. 출퇴근시에도 다른 선비들과 달리 말이나 수레를 타지 않고 지팡이를 사용해 걸어 다닐만큼 소박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로 세종대왕과의 해프닝이 있는데, 평소 류관 선생의 공을 높이 사고 있던 세종대왕은 시시때때로 그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류관 선생은 음식을 받으면 마을사람들과 잔치를 하고 하사품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등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절제의 상징 「계영배」

연말연시, 올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으로 술 자리도 함께 많아지는 시기이지요?

과연 잔에 술은 가득 채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가득 채우면 술 잔에 담겨있는 술까지 한번에 사라져 버리는 특별한 잔, 계영배(戒盈杯)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계영배는 고대 중국의 의기(義器)에서 유래합니다. 제나라 환공은 7할 이상 채우면 모두 흘러내리는 의기(義器)를 늘 곁에 두고 보며 과욕을 경계하였다고 하며 공자 또한 이를 본받아 의기(義器)를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조선시대 피나는 노력 끝에 당대 최고의 도예가가 된 우삼돌(우명옥)이라는 사람이 계영배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큰 성공 이후 술과 여자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다 결국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질그릇을 만들게 된 우삼돌은 방탕한 과거



를 후회하며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기로 다짐하고 훌륭한 그릇을 만드는데 매진하였고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의기(義器)를 본떠 자만함과 가득참을 경계하는 「계영배」라는 잔을 만들게 됩니다. 「계영배」는 특이하게도 잔에 70%정도를 채우면 물이나 술이 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지만 70%를 넘어가면 담겨져 있던 모든 것이 아래로 빠져버리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잔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최고 부자였던 거상 임상옥도 이 잔을 옆에 두며 욕심에 대해 경계하였다고 합니다.

술을 따라 마시면 자연스럽게 절주하게 되기에 「절주배」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는 「계영배」는 지나치면 모든 것이 공(空)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을 바로 눈 앞의 술잔을 통해 보여주며 우리에게 절제의 미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술을 따라 마시면 자연스럽게 절주하게 되기에 「절주배」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는 「계영배」는 지나치면 모든 것이 공(空)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을 바로 눈 앞의 술잔을 통해 보여주며 우리에게 절제의 미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술을 따라 마시면 자연스럽게 절주하게 되기에 「절주배」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는 「계영배」는 지나치면 모든 것이 공(空)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을 바로 눈 앞의 술잔을 통해 보여주며 우리에게 절제의 미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나의 거울이다



청렴! 내 자신의 모습 즉 내 자손들이 보고 배우는 모습입니다. 나 자신부터 지켜나가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맛짱 키워드로 돌아보는 2017 윤리경영

농단 VS 개혁

【**농 단**】 대통령의 헌법 위반, 청와대 비서진의 권한 남용,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등 연일 드러나는 권력자들의 무능과 부패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큰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위임받지 않은 자들이 국정을 농락하고 헌법 질서를 유리한 데 분노한 주권자들은 촛불을 들고 추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전국의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의 물결은 결국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졌고 지난 5월 조기대선을 통해 위기에 빠진 나라를 바로 세워주길 바라며 새로운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



【**개 혁**】 새 정부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고 사회 각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통해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국가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최고권력자들이 저지른 믿기 힘든 부정과 부패에 큰 충격을 받고 각성한 국민들인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높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주권자의 감시는 더욱 매섭고 철저할 것이다.

새 정부는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었는지 잊지 말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 뿌리를 도려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촛불 사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 공평, 청렴과 같은 윤리적근본 가치는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가장 큰 액수의 과태료 부과 사례

사실관계

A씨는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12월 31일 퇴직한 자이다. A씨가 근무하던 소방서는 소방공사 현장 등에 대한 표본점검 등 지도·감독을 하면서 2016년 11월1일 감리완공신청 표본검사 결과 B주식회사가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소방시설공사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B주식회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소방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6년 11월 1일 17시 30분경 A씨는 소방서 서장실에서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를 만났다, 같은 날 17시 40분경 소방서에 근무하는 신고자를 불러 신고자에게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법 위반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다음날인 11월 2일 16시 20분경 A씨는 소방서 관련팀장에게 B주식회사로 하여금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의 판단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
과태료
1,000만원



A씨는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했고 소방서 관련팀장에게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함으로써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신고자와 소방서 관련팀장에게 행정단속 또는 조사대상에서 B주식회사가 배제되도록 하거나 주식회사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했다. 이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란?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

-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포함)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사립학교의 정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α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연락처 포함) 부패 행위 내용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
- α 신고상당 :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 α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FAX(044-200-7972)

※ 이런 경우는 부패행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 행위

<우리공사 내·외부 신고센터>

- 사내계시판 : 청탁등록센터, 부당업무지시 신고센터, 원클릭신고센터
- 공사홈페이지 : 부패(범죄)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예산낭비신고
- 기 타 : 열린소통함, 우편신문고, 유선신고

광주시철도공사의 새로운

청렴문화가 시작됩니다.